

# 미래 10년 담은 물류인프라 구축

# 전북도 살림늘리기 '팔견어'

### 오늘 국비 확보 역량강화 도·시 공무원 합동 워크숍

### 도, 지역물류기본계획 확정... 6대 정책목표 · 18개 추진전략 바탕 45조4400억원 투입

전북도가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물류체계를 혁신시켜 나가기 위한 밑그림인 지역물류기본계획안을 지난 23일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날 물류정책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물류기본계획은 친환경적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형 친환경 물류거점으로서 6대 정책목표와 18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관문형 물류거점 기능의 차별화 △내수 물류네트워크의 균형화 △도시물류 지원체계의 효율화 △지역물류산업 선진화 및 미래역량 강화 △지역 전략(특화)산업 물류사슬 고도화 △물류(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의 합리화로 정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형 산업허브 지원기능 강화 △물류 인프라의 균형 개발 및 지역격차 해소 △도시물류 및 유통인프라 선진화 △ICT융합기반 물류표준화 및 정보화 △콜드체인 기반 원스톱 식품클러스터 체계 강화 △지역산업-물류 통합으로 미래형 물류체계 조기 구축 △농촌지역 맞춤형 공공물류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세웠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지역 주요 무역제품 공급사슬 분석을 통한 한-중 교역거점 활성화 △새만금 산업단지에 무인형 물류체계 시범단지 조성 △군산항 물류기능 강화 △내륙 철도물류 거점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6차산업 연계형 물류서비스 발굴 △지역 유통물류 DB 구축 및 전략사업 물류 지원 △낙후지역 및 고령

화 농민 지원을 위한 수배송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2016~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45조 4,440억원(국비 28조 7,494 지방비 3,319, 기타 16조3,627)이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중기(2017~42021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수송 및 교통부문에 투입가능한 한 재원은 5년간 8,854억원으로 물류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지방비 투입은 가능한 규모로 전망했다.

분야별 투자규모를 보면 △관문형 물류거점 기능의 차별화 사업 17조 3,376억원 △내수 물류네트워크의 균형화 사업 11조 858억원 △도시물류 지원체계의 효율화사업 449억원 △지역물류산업 선진화 및 미래역량 강화사업 338억원 △지역 전략(특화)산업 물류사슬 고도화사업 2,279억원 △물

류(복지) 서비스 지원체계의 합리화 사업 19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와 함께 물류공동화 및 정보화, 화물운송용 도로 및 시설, 지역 내 물류인재 양성, 친환경 운송수단 및 물류시설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북도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부문별 추진전략을 집중 검토하여 물류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정책개발 및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물류실현계획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도의 핵심 정책인 산락농정 구현 및 제4차산업혁명 선도에 기여하고, 새만금 개발과 함께 중국, 동남아 등을 연결하는 친환경 물류 전진기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새 정부 국가예산 중점투자 대응 및 국가예산 확보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군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하는 상반기 합동 워크숍을 진안지역에서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2018년 국가예산 부처 편성단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확보 과정에서 도출된 미흡사항 등에 대한 도 시군간 국가예산 업무공유 추진과 4차산업 및 새 정부 예산 중점투자 방향에 부합된 사업보장 등 기재부 단계 국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함께 모색하는 등 도 시군 국가예산업무 관계자의 역량을 배가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시군 국가예산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첫 일정으로는 국가예산 업무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재 기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예산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 정부 예산중점투자 방향 및 국가예산 확보 대응전략, 국가재정법의 이해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아울러 최근 새 정부 및 산업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해와

지자체 대응전략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인 KAIST 연구교수를 초청,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해와 우리지역의 최대 강점인프라인 자동차 및 탄소산업의 적용 가능분야와 새만금 지역에 대한 4차 산업 등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워크숍 둘째 날에는 현재 기재부 1차 삭감심의를 진행함에 따라 시군 등 주요사업에 대한 부처중앙 및 대응방안과 향후 기재부 2차 문제사업 심의(7.4~21), 3차 쟁점사업 심의(7.29~8.10) 등 단계별 예산심의 일정 전, 사전설명회 대상 및 논리보장 등을 위해 도와 시군의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함께 맞대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개최 한다.

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가예산업무 관계자의 역량강화와 도와 시군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재부, 국회단계별로 세분화된 철저한 준비를 갖춰 '전북의' '찾기의' 최대성과가 2018년 국가예산 확보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정보를 공유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도, 콘텐츠개발 공모 4건 선정

전북도는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2017년 상반기 문체부 공모사업에 최종 4건이 선정되어 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1개 사업만 선정되었던 지원사업이었으나, 올해는 전주, 군산, 순창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냈다.

선정된 사업은 도내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인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도내 콘텐츠 기업들과 협력, 2018년 6월까지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군산은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자원을 배경으로 수중 3D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상설 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순창은 강천산 병풍폭포를 중심으로 빛 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자연공원에서 미디어 공연과 색다른 야간 산책로를 경험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운영한다.

전주는 드론을 활용한 융복합 미디어아트쇼 기획 발굴, 공연 예술용 드론발 개발 및 드론예술공연단 운영 등 디지털 문화콘텐츠 공연의 새로운 시장 개척한다. 마지막으로 조선 왕조 발상지라는 김스토토리를 활용하여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에서 운영할 AR 기반의 게임 콘텐츠를 개발 운영한다.

/김진성 기자



평화 염원 '한반도기' 다시 나누기다

26일 전북도청에서 우리나라 WTF 태권도시범단과 북한 ITF 시범단이 합동공연을 연 가운데 관객석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기가 나누기고 있다.

## 도, 내달 19일부터 마이스 산업활성화 위한 행사 유치

전북도는 MICE(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이스 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7 Young MICE Community'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회장 김응수)가 주최·주관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며 내달 19일부터 1박 2일간 대명리조트 변산과 부안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이들 네 분야를 포괄하는 서비스산업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마이스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5년차 미만 마이스 실무자인 '영 마이스(Young MICE)' 300여명이

참가하며, '멘토와 함께 떠나는 전북 MICE Road Trip!'을 주제로 개최된다.

참가자는 7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한국MICE협회(www.micekorea.or.kr) 또는 도청 관광총괄과(063-280-4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 “학생 아이디어는 전북발전의 씨앗”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성과보고회 성료**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지역사회에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던 '2017년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과정이 마무리 됐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도영 도의원, 전북대 등 도내 6개 대학생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총 6개 대학, 20개팀 중에서 학교별 자체심사를 거쳐 총 12개 팀(학교별 2팀)이 본선 진출, 그동안 탐과 노력으로 발굴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활동상황에 대한 동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기타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최종 발표에 오른 12개 팀은 군산 폐철도의 문화관광콘텐츠연계 활용, 산악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대한민국 최초 탄소 특화거리 조성, 춘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진안고원 와이너리 파티, 지역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고위험군 관리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팀원간 역할분담, 수시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등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 내고 창의성을 갖춘 아이디어 발표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에 참가한 전북대 임수환 학생(경영학과 4)은 “내가 살고 있는 전북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양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대학생 여러분의 열정으로 만들어 낸 아이디어를 도정에 잘 접목해 전북 발전의 씨앗으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